

더불어민주당 방미의원단 공동 보도자료

배포일 : 2025.01.17.(금)

담당자: 조정식의원실 최민서 비서관(02-784-276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간사), 조정식, 홍기원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민의 성숙한 의지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양국 경제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와 보조금 축소 및 폐지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최근 대한민국은 12월 3일 발생한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국가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지만,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1월 15일 체포됐고 이는 헌정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방미의원단 메시지 전문

더불어민주당 방미의원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 및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 될 것이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지와 열망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를 이룰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를 보내준 미국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둘째,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한미 경제 협력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으로 강화돼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상호호혜적 관계를 지속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관세 및 미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CHIPS(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할 것이다.

실제 미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65만 개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별 투자기여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써 급격한 정책 변화는 대미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분쟁과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기억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이 다시금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2025. 1. 17

더불어민주당 방미의원단
김영배(간사), 조정식, 홍기원 의원